

# ‘美 주식 열풍’ 계속된다… 증권사, 4분기 실적도 ‘好好’

5대 증권사 3분기 당기순이익 1조2267억… 지난해비 68%↑  
 해외주식 수수료 급증 영향 ‘美 우선주의’ 정책에 상승세 지속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미국 우선주의’ 이미지.

대형 증권사들이 국내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 미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의 4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 합산액은 지난해에 비해 69% 증가한 1조2267억원에 달했다. 올 하반기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PF) 및 해외투자자산 총당금 적립액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증권사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실적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올 3분기

국내 주식시장 일 평균 거래대금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열풍으로 인한 해외 거래대금 증가로 해외주식 수수료가 급증, 국내 증시의 부진을 상쇄하면서

5대 증권사들이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다. 올 3분기 해외주식 일 평균 거래대금은 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0%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도 지난 7일 기준 1013억6570만여달러(약 141조7295억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시장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다. 키움증권은 3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증가한 52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각각 약 79%, 148% 증가했으며,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각각 77%, 5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이동 현상은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핵심 테마 중심의

증시 상승추세로 인해 올들어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8년 4%에 불과했던 외화증권 수수료 비중이 최근 25%까지 상승해 증권사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몰림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4분기에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미국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항상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미국 증시전망은 사상 최고치 아니면 약간 조정 정도로 가고 있어 해외 주식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상장사,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해야”

금감원, 공시 세부작성 지침 마련 2026년부터 전체 상장사로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 운영 기대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충실하고 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는 내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첨

부되는 서류로,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자산 1000억원 이하 상장 금융사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 금융사 등에 해당 공시가 의무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6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예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일 부로, 회사가 자금 부정 통제를 적극적

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 기준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또 작성 사례와 FAQ를 마련해 실무자의 작성 편의를 돕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들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이날 사전 예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 급락

호재·악재성 정보 시간차 공시  
 이수페타시스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8일 장마감후 공시한 회사측의 2차전지 소재기업 인수계획 등 중요 의사결정이 ‘선별적 공시’ 의혹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11일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개장초 18%까지 하락했다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인 끝에 전 거래일 대비 22.68% 하락한 2만4550원에 장을 마쳤다. 이같은 급락세는 대규모 증자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일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이 중 2998억원을 2차전지 탄소나노튜브 소재 제조업체 제이오의 경영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수페타시스의 주주는 인공지능(AI) 기반 MLB 기

관(고다층인쇄회로기판)의 고성장을 공유하기 위한 투자자이지 이차전지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수페타시스의 ‘올빼미 공시’ 논란이 투자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8일 오후 4시 55분, 대구시와의 투자협약 체결 소식을 공시하고, 곧이어 제이오가 최대주주 강득주 대표이사 지분(575만주)을 이수페타시스에 양도하는 공시를 냈다. 이를 호재성 정보로 인식한 투자자들이 시간의 단일이 거래로 이수페타시스 주식을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시간의 단일이 거래가 마감된 직후 이수페타시스는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악재성 내용을 공시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이날 오전 9시에 유상증자와 시설 투자안건을 이사회에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로 나눠서 공시한 것이다. /원관희 기자

## 한투증권, 국내외 투자기회 발굴 지원

‘KIS글로벌투자자 콘퍼런스’  
 한국투자증권이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KIS 글로벌투자자 콘퍼런스 2024(KIS Global Investors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투자기회 발굴 및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는 콘퍼런스이다.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개막 연설에서 “한국투자증권은 고객들과 더불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 플랫폼과 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참석하신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08년부터 홍콩, 싱가포르, 뉴욕, 런던 등 전세계 금융도시에서 연 1회 개최해 오다, 지난해부터

는 국내에서도 추가로 개최하며 기업과 투자자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 이번에는 국내외의 73개 기업과 글로벌 기관투자자 28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참여해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해외에서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대만의 팹리스 반도체 회사 에이데이터(ADATA) 등이 참석해 투자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컨퍼런스 현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스킨십 강화를 위한 약 380건의 기업 미팅이 열렸다. 11일에는 미국의 소형모터원전 기업 오클로의 제이콥 드위트 대표가 혁신에너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미즈호증권의 스티븐 리치우도 수석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의 마사히로 와카스기 반도체 애널리스트, 스티벌파이낸셜의



김성한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KIS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4’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토마스 캐럴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도 연사로 나서 분야별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어서 AI 반도체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세션도 진행됐다. 12일에는 워싱턴 리서치그룹의 크리스토퍼 투기 이사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화와 산업별 영향에 관해 강연한다. /허정윤 기자

## KB자산운용, TDF 수탁고 1.5兆 돌파

(타깃데이트펀드)  
 시장 점유율, 작년 말비 0.8%p 늘어  
 KB자산운용은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수탁고가 1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전체 TDF 수탁고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시장 점유율이 작년 말 12.5%에서 13.4%로 0.8%포인트 상승했다. KB자산운용 측은 “지난 2년간 수탁고 증가 규모를 놓고 보면 전체 TDF 운용사 중 1위”라고 말했다. TDF 업계 상위 5개 자산운용사 가운데 연초 이후 점유율이 높은 곳은 KB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이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덕분이라고 KB자산운

용 측은 설명했다. ‘KB온국민·다이나믹TDF’ 전체 빈티지의 1년 수익률은 평균 18%를 웃돌 정도로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온국민TDF2055’의 경우 1년 수익률이 약 27%에 이른다. KB자산운용은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KB온국민 TDF’와 ‘KB 다이나믹 TDF’ 등 두 종류의 TDF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KB 온국민 TDF는 패시브형 펀드로, 보수가 저렴하고 변동성이 낮아 장기 투자 시 높은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KB 다이나믹 TDF는 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액티브형 펀드로,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과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허정윤 기자